

노인성 안질환 '황반변성' 증상과 치료법

노화가 주원인... 발견 늦으면 시력 잃을 수도

시력 담당하는 황반, 기능 떨어져 발생
비정상 혈관 없애는 레이저 시술 치료

매일 아침 8km를 조깅하며 같은 연령대 누구 못지 않게 건강을 자신했던 김모(67)씨는 최근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시야 중앙의 글자들이 시커멓게 풍쳐 보여 깜짝 놀랐다. 병원을 찾아 진진을 받은 결과 '노인성 황반변성'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노인 실명의 주원인이 백내장과 녹내장이었지만, 최근에는 '황반변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대부분 늦게 발견돼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 이연안과 김창룡 원장을 통해 노인성 안질환으로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노인성 황반변성'에 대해 알아본다.

◇노인 황반변성이란?=황반은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곳으로 신체의 노화에 따라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때 중심시력이 나빠지거나 상실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며, 처음에는 자각 증세가 없어서 질환이 한참 진행된 뒤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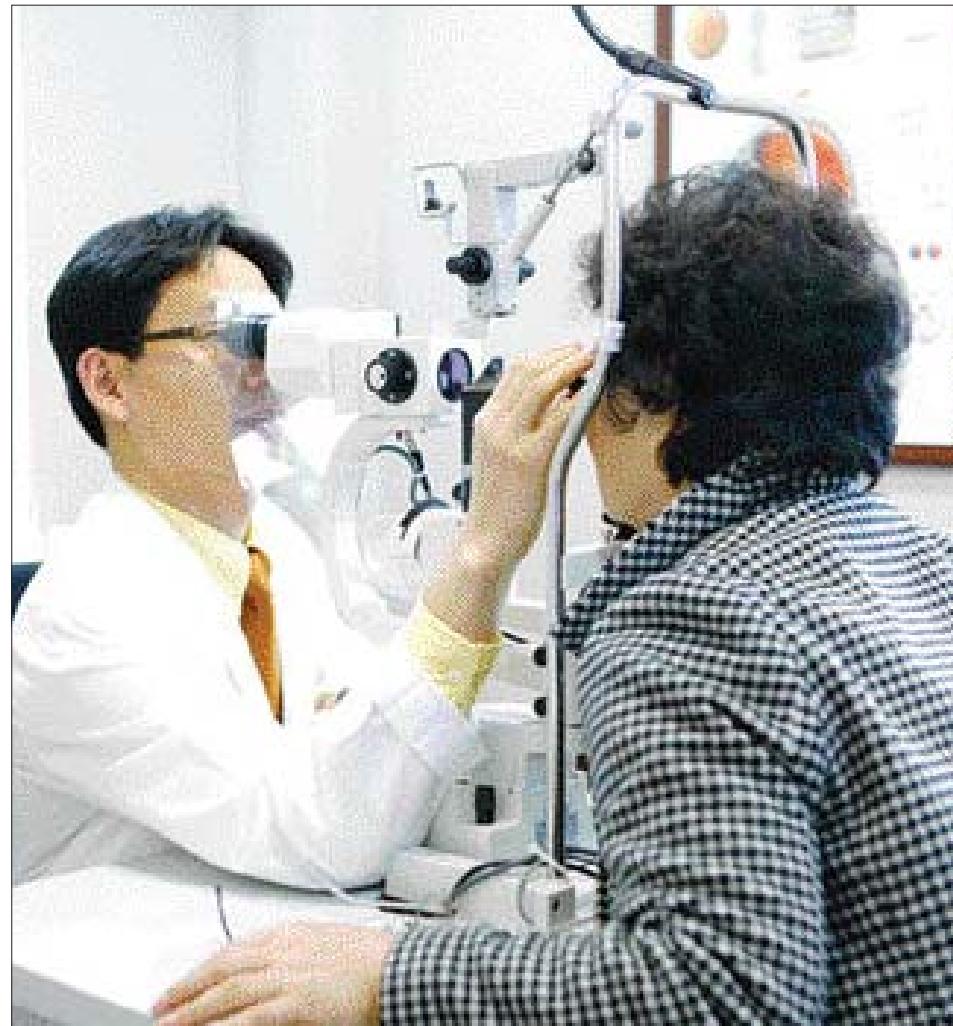
불의 모양이 구부러져 보이거나 삼하면 중심시력을 잃게 된다. 중심시력을 잃으면 보고 싶은 사물을 보지 못하고 배경만 보게 된다.

◇왜 생기나?=황반변성 원인은 노화가 70%를 차지한다. 이 밖에 유전·약물·방사선 등에 의해서도 발병한다. 75세 이상인 경우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황반변성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흡연·고혈압과 고지혈증·자외선 노출·혈관 항산화비타민 농도가 낮은 경우 발생률이 더 높다.

◇종류?=노화에 따른 황반변성은 건성과 습성 두 가지로 나뉜다. 건성은 시세포가 노화로

황반변성 체크 리스트

- ▲글자체가 흔들려 보인다
-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글자의 공백이 보인다
- ▲직선이 흐려 보인다
- ▲그림을 볼 때 어느 부분이 지워진 것처럼 보인다
- ▲시야 가운데가 흐릿하거나 시야 중심에 겹거나 빛 부분이 있다
- ▲시력이 떨어진다
- ▲물체가 찌그러져 보인다
- ▲물체 색이 이상하게 보인다.



인해 파괴되면서 그 찌꺼기가 망막에 쓰이는 것이며, 진행이 느리고 급격한 시력 저하는 적다. 습성은 황반에 신생혈관이 발생, 혈액 내 체액성분과 혈액 자체가 누출돼 급격하고 심각한 시력저하를 유발한다. 유전에 의한 황반변성은 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으며, 외상, 염증이나 감염으로 인해 황반부의 섬세한 조직이 손상을 받아 황반변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연안과 김창룡 원장이 노인성 황반변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경우 의심=황반변성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시야 가운데가 흐릿하거나 시야에 흐릿한 점이 보이고, 직선이 구불 구불해 보이거나 시야 중심에 겹거나 빛 부분이 생긴다.

한쪽 눈이 정상이고 다른 쪽 눈에만 황반변성이 있을 때에는 처음엔 불편한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심지어 몇 년 동안 불편 없이 지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양쪽 눈에 모두 황반변성이 발생하면 독서와 정교한 작업이 매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비정상혈관만을 치료하는 광역학치료(PDT) 등의 특수 레이저가 쓰인다. 최근에는 광역학 치료와 함께 안구 내에 액물을 주사하는 방법도 동원된다. 출혈이 심하거나 망막이 떨어져 나간 경우에는 혈관막을 없애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최근기자 ckki@kwangju.co.kr)
(도움말=이연안과 김창룡 원장)

우 어려워진다.

◆치료=일반적인 치료방법은 비정상 혈관을 레이저로 태우는 레이저 광응고술이다. 그러나 습성 황반변성 환자 중 레이저 광응고술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10~15% 정도로 적다. 일부에서는 비정상적인 혈관을 없애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대다수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경우 정상 망막조직의

유통 한약재 중금속 뒤범벅

납·카드뮴 등 기준치 최대 204배까지 검출

납·카드뮴 등 기준치 최대 204배까지 검출

납·카드뮴 등 부적합 약재 가운데 국산 '포화'에서 기준치의 204배인 1천23ppm로 가장 많이 검출됐으며 카드뮴의 경우 중국산 '홍화'에서 기준치의 20배인 6.0ppm이 나왔다.

비소는 중국산 '혈갈'에 기준치의 5.7배인 17ppm 농도로 들어 있었고, 원산지가 불분

약재별로는 '세신'이 9건 검사 결과 9건(8건 중국산, 1건 원산지 불명) 모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황련'의 경우도 16건 가운데 14건(중국산 7건, 국산 2건, 원산지 불명 5건)에서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의원은 "식약청의 광범위한 모니터링 결과 적지 않은 수입 및 국내 생약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며 "부적합 생약이 약재 및 식품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산 생약 중금속에 대한 원인 규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산과 수입 한약재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204배에 이르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 민주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2006~2007 생약 중 중금속 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과 수입 한약재 309품목 1천949건 가운데 8.5%인 16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생약 166건 가운데 카드뮴 부적합이 133건으로 80.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납이 37건(22.3%), 비소와 수은이 각 8건(4.8%)으로 나타났다.

국산과 수입 한약재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204배에 이르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 민주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2006~2007 생약 중 중금속 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과 수입 한약재 309품목 1천949건 가운데 8.5%인 16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생약 166건 가운데 카드뮴 부적합이 133건으로 80.1%

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납이 37건(22.3%),

비소와 수은이 각 8건(4.8%)으로 나타났다.

국산과 수입 한약재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204배에 이르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 민주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2006~2007 생약 중 중금속 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과 수입 한약재 309품목 1천949건 가운데 8.5%인 16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생약 166건 가운데 카드뮴 부적합이 133건으로 80.1%

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납이 37건(22.3%),

비소와 수은이 각 8건(4.8%)으로 나타났다.

국산과 수입 한약재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204배에 이르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 민주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2006~2007 생약 중 중금속 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과 수입 한약재 309품목 1천949건 가운데 8.5%인 16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생약 166건 가운데 카드뮴 부적합이 133건으로 80.1%

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납이 37건(22.3%),

비소와 수은이 각 8건(4.8%)으로 나타났다.

국산과 수입 한약재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204배에 이르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 민주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2006~2007 생약 중 중금속 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과 수입 한약재 309품목 1천949건 가운데 8.5%인 16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생약 166건 가운데 카드뮴 부적합이 133건으로 80.1%

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납이 37건(22.3%),

비소와 수은이 각 8건(4.8%)으로 나타났다.

국산과 수입 한약재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204배에 이르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 민주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2006~2007 생약 중 중금속 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과 수입 한약재 309품목 1천949건 가운데 8.5%인 16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생약 166건 가운데 카드뮴 부적합이 133건으로 80.1%

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납이 37건(22.3%),

비소와 수은이 각 8건(4.8%)으로 나타났다.

국산과 수입 한약재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204배에 이르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 민주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2006~2007 생약 중 중금속 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과 수입 한약재 309품목 1천949건 가운데 8.5%인 16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생약 166건 가운데 카드뮴 부적합이 133건으로 80.1%

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납이 37건(22.3%),

비소와 수은이 각 8건(4.8%)으로 나타났다.

국산과 수입 한약재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204배에 이르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 민주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2006~2007 생약 중 중금속 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과 수입 한약재 309품목 1천949건 가운데 8.5%인 16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생약 166건 가운데 카드뮴 부적합이 133건으로 80.1%

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납이 37건(22.3%),

비소와 수은이 각 8건(4.8%)으로 나타났다.

국산과 수입 한약재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204배에 이르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 민주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2006~2007 생약 중 중금속 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과 수입 한약재 309품목 1천949건 가운데 8.5%인 16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생약 166건 가운데 카드뮴 부적합이 133건으로 80.1%

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납이 37건(22.3%),

비소와 수은이 각 8건(4.8%)으로 나타났다.

국산과 수입 한약재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204배에 이르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 민주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2006~2007 생약 중 중금속 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과 수입 한약재 309품목 1천949건 가운데 8.5%인 16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생약 166건 가운데 카드뮴 부적합이 133건으로 80.1%

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납이 37건(22.3%),

비소와 수은이 각 8건(4.8%)으로 나타났다.

국산과 수입 한약재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204배에 이르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 민주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2006~2007 생약 중 중금속 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과 수입 한약재 309품목 1천949건 가운데 8.5%인 16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생약 166건 가운데 카드뮴 부적합이 133건으로 80.1%

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납이 37건(22.3%),

비소와 수은이 각 8건(4.8%)으로 나타났다.

국산과 수입 한약재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204배에 이르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 민주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2006~2007 생약 중 중금속 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과 수입 한약재 309품목 1천949건 가운데 8.5%인 16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생약 166건 가운데 카드뮴 부적합이 133건으로 80.1%

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납이 37건(22.3%),

비소와 수은이 각 8건(4.8%)으로 나타났다.

국산과 수입 한약재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204배에 이르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 민주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2006~2007 생약 중 중금속 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과 수입 한약재 309품목 1천949건 가운데 8.5%인 16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생약